

		<h2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2>	
보도일시	2021. 8. 4.(수) 10:40	배포일시	2021. 8. 4.(수) 10:00
담당과장	예산실 복지예산과장 장윤정 (044-215-7510)	담당자	이동석 사무관 ecko7080@korea.kr
	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(044-202-3380)		박옥진 사무관 legopark@korea.kr

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-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, 현장간담회 -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'21.8.4(수) 10:40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“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”를 주재
 - ‘조직화된 목소리’를 내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,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‘현장공감 예산’의 일환

< 간담회 개요 >

- **일시·장소:** '21. 8. 4.(수) 10:40,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
- **참석:** (기재부) 최상대 예산실장, 복지예산과장
(복지부) 인구아동정책관, 아동학대대응과장, 아동권리과장
(현장관계자) 곽영호 교수(서울대), 김혜경 기관장(세종 학대피해아동쉼터),
조민선 본부장(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본부)
장화정 기관장(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),
- **논의:**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

※ <붙임> 모두발언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붙임

모두발언

[인사말씀]

- 반갑습니다.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최상대입니다.
-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, ‘조직화된 목소리’를 내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‘현장 공감예산’을 추진 중
 - “아동”이야말로 가장 소외되고,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해 별도 현장간담회를 갖게 되었음

[아동학대 보호정책 추진현황]

- 여기 계신 많은 현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이번정부 기간 아동학대 대응 정책추진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
 - * 총 4차례 아동학대 관련 대책 발표 :
 - 「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」(‘18.3), 「포용국가 아동정책」(‘19.5),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대책」(‘20.7), 「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」(‘21.1)
 -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, 아동보호정책을 뒷받침하고,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“공적인 책임”을 강조
 - * 아동학대전담공무원 : (‘20) 290 → (‘21) 664명
 - 각각의 역할분담도 명확히 하여, ‘학대조사’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, ‘분리보호아동 관리’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, ‘피해아동 사례관리’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기로 함
 - 또한, 범죄피해자보호기금(법무부)과 복권기금(기재부)에서 각각 지원하던 주요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관련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 방향도 기 발표
 - * (범죄피해자보호기금)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(‘21, 287억원)
(복권기금)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·운영(‘21, 87억원)

[내년도 아동학대 예산편성 방향]

- 내년에는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
 - ⇒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,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
- 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지속 증원하고, 녹취록 장비 지원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
 - * 아동보호전담요원 : ('20) 334 → ('21) 524 → ('22) 700명 이상
 - *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 1대씩 지원
- ② 아동보호전문기관,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예년보다 적극 확충, '25년까지 전국에 고르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 강화
 - * 아동보호전문기관 : ('21) 81개 → ('22) 95개 수준 ≈ ('25) 120개 목표
 - 학대피해아동쉼터 : ('21) 105개 → ('22) 140개 수준 ≈ ('25) 240개 목표
-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*,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** 신규 도입 등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
 - * 심리치료 제공 아동 : ('21) 2,000명 → ('22안) 4,800명 수준
 - ** 1,000개 피해아동 가정 대상 심리검사, 관계개선프로그램 도입 등 집중 사례관리 실시

[마무리말씀]

-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 있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
 - 남아 있는 사각지대 발굴·보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경청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생각
- 코로나 장기화로 숨어있는 아동학대가 증가할까 우려
 - 어린이집, 학교, 학원 등 외부활동을 통해 노출되지 않고, 전담공무원의 학대의심 가정 방문·조사 등도 애로
-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으나, '조직화된 목소리'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시길 바랍